

## 多様な變化의 물결과 農村生活改善方向

許 信 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院長

### I. 技術의 革新

해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태평양을 건너는 보통사람들의 교통수단은 선박에 불과했고,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美國까지 여행을 하는데는 2개월 안팎의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반도의 6.25 戰爭이 터지고 난 후 韓·美간에 空中交通手段이 등장하게 되자 여행시간은 놀랍게도 만 하루로 단축되었다. 그래도 美國은 먼곳으로 느껴졌고, 두 나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요즈음 김포와 뉴욕의 直航路가 개설되고 나서 비행시간은 11시간까지 단축되었다. 그래도 美國은 아직까지 먼곳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 極超音速旅客機가 개발되어 地球 반바퀴의 비행시간을 1~2시간대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으로만 느껴졌던 地球의 반바퀴를 돌아 어디고 갈 수 있는 비행시간이 불과 1~2시간 정도 소요된다면, 地球는 이제 하나의 조그마한 村落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出退勤이 가능해진 1日生活圈으로 바뀐 셈이다. 사실 1초에 600 km의 時速으로 달린 인공위성 보이자 2호가 12년간 날아 해왕성을 지나면서 地球를 쳐다볼 때 우리가 작은 먼지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일거라고 상상해보면 오늘날 地球村의 統合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가 技術의 革新에 따른 交通과 通信의 발달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다. 技術의 발전이 어디 交通과 通信分野에만 국한되었는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컴퓨터며, 衣·食·住, 家電製品, 遺傳工學, 教育, 文化, 심지어 어린이들의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생활의 구석구석에 기술의 발전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筆者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時代를 「技術의 時代」라고 부르고 싶고, 이는 앞으로 1世紀 이상 지속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時代는 「資源의 時代」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技術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노벨과학상을 받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체 진리의 1%도 못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 技術의 發達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가히 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技術이 한없이 발전될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변화는 농촌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技術의 革新에 따른 몇가지 變化의 물결과 함께 그에 수반될 농촌의 생활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코자 한다.

### II. 變化의 물결과 農村生活改善方向

#### 1. 地球村의 統合에 따른 生活形態의 同質化

技術의 革新에 따라 地球가 하나의 村落처럼 통합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國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어느 곳이나 여행이 자유스러워지고, 開放化와 自律化의 물결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잦은 여행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며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대편의 좋은 점과 편리한 것은 쉽게 수용하는 반면에 자기편의 나쁜 점과 불편한 것은 버리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민간에도 생활의 형태가 비슷하게 갈아질 수 있다.

지금 세계 어디를 여행하면서 살펴봐도 文明國의 百貨店은 거의 비슷하고, 도로와 자동차, 다른 生活用品에 이르기까지 서로 닮아 가고 있다.

\* 198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생활과학회 총회에서의 특별강연을 요약한 것임.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서울 등 세계의 大都市에 자리잡고 있는 商街의 물품들은 대부분 날로 비슷해지고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주요도시에 가면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상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흔하게 널려 있다.

技術의 革新은 자연적인 조건의 차이까지를 극복케 만든다. 찌는듯이 무더운 中東地域의 여인들이 밉코트를 구입한다든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북극지방의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나 수영복을 사들이는 것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겨난 異變이 아닐 수 없다. 中東에도 冷房장치가 되어 있어서 자동차 속이나 건물안은 춥고, 북극 지방에는 溫房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室內는 덥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연조건 아래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技術의 革新에 따른 生活環境의 同質化로 인하여 生活形態가 비슷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農村生活도 앞으로 예외없이 國際化의 추세로 同質化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同質化 추세는 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눈을 뜨고 세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할 때 그들의 농촌생활은 다음과 같이 특징있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매우 合理的이면서 科學的이고 經濟的인 형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기왕이면 편리하고, 멋있으면서 아름다운 생활, 그리고 가치있는 생활의 추구를 꾀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촌생활 개선도 이러한 합리성과 경제성 그리고 편리성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2. 제 3의 물결과 農村生活形態의 混合化 : 轉換期的 狀況

社會의 變化는 거듭된 물결로 끝없이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일 수도 있고, 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社會의 變化는 발전의 연속이러는데 별로 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變化의 물결은 「農耕社會」→「產業社會」→「情報社會」로 이어지고 있다

는 관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긍하고 있는 것 같다. 尖端技術의 발전을 밑바탕으로 한 情報社會를 「제 3의 물결」로 지칭한 사람은 애초에 알빈 토플러였지만, 지금은 소수 학자들의 흥미를 벗어나 하나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각기 다른 물결의 시대적 구분이요, 한국이 지금 어느 물결에 속해 있느냐 하는 좌표의 확인이다. 각 국가별로 정확한 시대적 구분을 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770년대 英國의 産業革命이 일어났을 때 제 2의 물결인 產業社會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후 다른 유럽諸國과 北美 그리고 他地域의 先進諸國이 200년에 걸쳐 產業社會를 경험해 온 것이다. 그리고 尖端技術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世紀末, 일부 先進國을 중심으로 하여 제 3의 물결인 情報社會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국은 불행하게도 일찌기 開化되지 못하고 外勢의 연속된 침략과 內戰으로 인하여 1950년대말까지 제 1의 물결인 農耕社會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랜 침체의 熟眠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에 착수된 제 1차 5개년 經濟開發計劃부터 꿈틀거리기 시작, 1970년대 초에 드디어 제 2의 물결인 產業社會로 진입하게 된다. 先進諸國이 지난 200여년간에 걸쳐서 개발해 놓은 技術의 局面過渡의인 습득과정을 거쳐 한국은 매우 빠른 시간안에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제 3의 물결인 情報社會로 진입하고 있다. 복잡다양한 產業社會를 충분히 소화 내지 여과시키지 못한 채 情報社會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은 農業이나 通信 또는 서비스 분야와 같이 낙후된 部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農村은 지금 제 1 물결의 현존상태에서 제 2와 제 3의 물결을 동시에 경험해야만 하는, 감내하기 힘든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나이 많은 老人의 세대는 傳統的인 農耕社會의 가치관을 그대로 지니고 「農者天下之大本」의 관념 아래서 너무나 保守的일 정도로 새로운 商業農耕時代로의 적응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요즈

음 20代의 젊은 세대는 너무나 모험적일 정도로 새로운 情報와 技術을 무분별하게 받아 들일려고 서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中年階層은 方向感覺을 상실한 채 일종의 혼란에 빠진 감이 없지 않다.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농업 그 자체에서도 전통적인 米麥 중심의 단순 재생산이 과거와 같이 그대로 영위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근대적인 牧場이나 첨단적인 고도의 技術農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농촌사회는 人的構成면이나 농업의 형태 모든 측면에서 제1~제3의 물결이 혼합된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동일한 시대속에서 세계의 서로 다른 물결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농촌사회에서 생활개선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가? 현존하는 農耕과 産業社會의 특징을 감안하면서도 앞으로 맞이하게 될 情報社會를 지향하는 生活改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추리된다. 그렇다면 農耕社會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自然에 순응하는 生活形態를 밑바닥에 깔되, 産業社會의 대표적인 특징인 機械의 개발에 의한 大量生産의 유리성을 활용하여 情報社會에 알맞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産業社會의 특징이 大量生産 및 大量消費, 集團化 및 劃一化, 標準化 및 規格化, 非個性化 등이라면 情報社會의 특징은 이들과 배치되는 非大量化, 脫集團化 및 脫劃一化의 細分化 및 微細化, 非規格化, 個性化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기에 농촌의 생활도 産業社會의 특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脫産業社會인 情報社會이므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태적인 방향감각없이 그 시대에 알맞는 생활개선만을 추구하면, 오늘날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는 試行錯誤의인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事例를 들어 설명해보면 농촌의 住宅이나 생활환경, 그리고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엌, 화장실, 응접실, 침실, 정원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개선작업을 시도코자 할

때 다른 농가와 똑같이 劃一化한다든지 規格化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낙후된 것이다. 오히려 개별 농가가 처해 있는 주변환경과 내부여건에 조화될 수 있는 독특한 설계를 거쳐서 微細하고 個性있게 농촌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創意的인 노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産業社會에서 大量生産으로 규격화된 材料들을 어떻게 個別農家의 생활특성에 알맞게끔 섬세하게 조립 내지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 3. 國際化·分業化·自由貿易의 物결과 農村生活改善의 素材

農村生活이란 概念속에는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농민들의 衣·食·住 뿐만이 아니라 家庭 및 家族의 관리는 물론 生活共同體의 주변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생활개선이 물질적인 것이건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건간에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國際化와 分業化 그리고 自由貿易의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되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과제로 開放化로 압축될 수 있는 國際化·分業化·自由貿易의 물결이 범람하게 될 때 농촌의 생활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지금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농민들의 식생활이나 衣類 그리고 住宅의 형태가 점차 국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國際化過程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모든 素材가 역시 국제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재료라든가 衣類는 물론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開放化의 물결을 타고 우리 나라에도 자유로이 들어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나

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財貨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교역되다 보면 사람들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상품 또는 材料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自由貿易이 성행하게 되면 「國產品愛用」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런 시기가 오면 농민들은 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材料를 더 많이 愛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素材에 대해서는 外製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우수한 것을 애용하라고 말하면 상당한 거부반응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거부반응은 사라질 것이고, 미래를 지향했던 생활개선의 노력이 오히려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건축재료 가운데에는 많은 外製品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加工食品의 수입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素材의 수입상품들도 앞으로 우리 나라의 농촌에까지 범람하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기에 농촌의 생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계여행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농촌의 생활여건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4. 都農간의 統合과 農村生活環境의 變化

産業化의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국가는 都市化와 工業化의 팽창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 여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工業化로 인하여 한국은 都市化의 급진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과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한 단계 앞서서 발전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 都市와 農村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都市와 農村을 잇는 空間이 住宅이나 다른 건축물로 채워져서 肉眼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大都市 주변의 농촌은 거의가 衛星都市化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

로 인하여 都市와 크게 다를바 없다. 그래서 都市와 農村은 점차 통합의 과정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都農간의 統合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人口에 비한 國土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더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물론 美國이나 캐나다처럼 국토의 면적이 광활하게 큰 나라에서도 공간적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都農간의 統合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가진 능력의 소유가정은 西歐社會에서도 郊外로 住宅을 옮겨서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코자 노력한다. 高齡으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은 오히려 都市로 이동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머지 않은 장래에 都市의 富裕階層은 점차 郊外의 農村地域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수록 이런 현상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에 장기적으로 工業化가 계속 진전되면 都市와 農村이 거의 하나로 통합되어 都農간의 구분이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都農이 하나로 점차 통합된다면 농촌의 생활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都市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住居空間과 生産活動空間이 점차로 구분되리라는 전망이다. 옛날에는 家庭안에서 家畜을 기르고 퇴비를 생산하며 脫穀을 하는 등 많은 農作業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생산활동들이 農家밖의 農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住居目的의 農家와 生産目的의 農場이 구분되는 방향에서 농촌의 생활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

농민들의 住宅도 앞으로 所得이 향상됨에 따라 都市住宅 못지않게 고급화 내지 田園化되리라고 예견된다. 같은 건축비용을 가지면 농촌에서 도시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空間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각할 수 없는 庭園의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문제는 농촌의 소득증대에 있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농촌의 유리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생활개선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 5. 農業의 發展段階와 農村生活改善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업도 오랜 기간의 傳統의인 自給自足的 生計農業으로부터 1968 年을 轉換點으로 하여 動態的인 商業農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효율적인 商業農의 출현이 2000 년대 이후에 가능해지리라고 추정할 때 1968 년부터 2000 년까지의 32 년간을 轉換期的 過渡期의 農業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농업이 이러한 3 단계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농업·농민·농촌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농민들의 가치기준과 태도 및 동기가 부정적이고 저항적인데서 점차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농업의 생산목적도 가족소비나 생계유지에서 소득증대 내지 이윤의 극대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농민들의 意思決定過程이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 내지 선택적으로 바뀐다. 생산기술이 향상되고, 생산요소의 自家調達比重이 줄어든 반면에 購入比重이 커지고, 농산물의 商品化率도 점차 높아지게 된다.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농촌의 생활개선도 이들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농가는 과거 처럼 部落으로 集團化되는 것보다 오히려 개별농장의 모퉁이에 독자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제화를 지향하는 商業農時代에는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분산된 田畵의 통폐합과 함께 農地基盤의 확대정비가 요청되고 農業機械化에 따른 비용의 절감이 뒤따라야 하므로 農家는 자기 農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큰 農場, 규모화된 農場을 가지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개방화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없다. 고로 農家와 農場은 구별하되,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生活環境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農作物栽培農地와 家畜飼育場, 농산물 처리장, 농기계의 보유 및 관리장, 퇴비장, 그리고 家族의 생활공간 등 모든 기능과 활동이

경제적으로 분리, 상호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생각할 때 1970 년부터 이루어져온 새마을運動의 聚落構造改善事業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개별농장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없이 높은 언덕이나 산중턱에 集團化된 농가들은 商業農과 情報化時代에는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던 1970 년대만 하더라도 집단적인 聚落構造가 알맞았는지 모르나 불과 20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노력은 헛수고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방향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의 하나이다.

### 6. 農村의 分解와 集團村落社會의 變質

農村은 産業化過程에서 다양하게 분해되고 있다. 1968 년까지만 하더라도 農家의 총인구는 1 천 6 백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증가추세에 놓여 있었는데, 그후 都市化와 工業化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연평균 40 만명 이상씩 도시로 流出됨에 따라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동시에 농가 호수마저 축소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農家人口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따라 농촌에도 과거의 大家族 중심에서 核家族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젊고 유능한 사람들부터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다보니 농촌에 남아 있는 農業人力의 대부분이 老齡化 내지 婦女化되고 있다. 이처럼 農家人口의 구성뿐만 아니라 家族의 단위가 달라지게 되니 農事에 대한 意思決定은 물론이고 가정생활에 대한 主導權마저 젊은 계층으로 또는 婦女者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농촌의 생활개선도 이들 새로운 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農家人口와 戶數가 계속하여 감소됨에 따라 농촌에 있는 共同施設이나 公益事業도 모두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축소되고, 보건기구 및 복지시설이 위축되며, 각종 문화시설까지도 일부 유희화되는 등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원격

지 농민들도 가까운 都市를 축으로 하여 교육, 건강, 문화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視角에서 볼 때 농촌의 생활환경, 특히 共同利用을 목적으로 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農家の 形態도 農業專門家, 兼業農, 零細小農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농업만을 영위하는 농가는 耕地規模를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兼業農이나 零細小農 등은 農外就業의 기회를 늘리는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가의 형태에 따라 생활개선도 다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맺는 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말과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무서운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技術의 발전속도에 따라 변화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건 아니건간에 우리는 적응해 가면서 살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농촌의 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몇가지 변화의 물결을 정리하면서 농촌생활 개선방향과 연결시켜 보았지만, 여기서 추리해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생활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든 활동과 思考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직면하게 될 농촌의 생활변화는 더 충격적일 수 있다. 20~30년전 누가 오늘의 농촌 변화를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는가. 技術의 革

新이 가속될수록 그에 따른 변화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올 20년후의 농촌생활상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돌아올 사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그에 대한 對應力을 갖추는 일이다. 그렇게 하여 농민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삶의 質을 높혀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학문이나 사업분야에서도 새로운 視角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노력과 연구가 결여되지 않고 충실해질 때 비로소 試行錯誤에 따른 社會的 費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과 조정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알빈 토플러, 「제3의 물결」, 學園社, 198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農業部門」, 1984.
- 허신행, 「한국농업의 성장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허신행, 「韓·美 農產物 交易摩擦에 대한 對應戰略」, 大韓商工會議所·韓國經濟研究센터, 1989.
- 農村振興廳, 1989년도 農村生活改善事業 實行計劃 및 기타자료.